

완도 명사십리, 국내 유일 '블루플래그' 재인증 땀다

세계 각국 해수욕장·마리나 대상
안전·환경교육·수질 등 평가
작년 획득 이어 올해도 도전장
막구조물 녹지 전환 등 준비 박차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의 블루플래그 재인증을 추진하는 완도군이 해수욕장 내 막구조물상가 13동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완도 신지 명사십리가 올해 재인증에 나섰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블루플래그 재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루플래그 인증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이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 항목과 137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1985년 유럽에서 시작돼 2001년 세계적으로 확대됐으며, 2016년 현재 50개국의 해수욕장과 마리나(해변의 종합관광시설)가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갱신되며, 최초 인증 획득 후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완도군은 재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137개 요구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미비한 사항은 개선·보완하고 있다.

특히 임대 기간이 끝난 막구조물 상가 13동을 이달까지 철거한 후 부지는 녹지로 전환해 휴양 여건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욕장 방문객 보행로이자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높은 약 3km의 데크로드의 정비도 마쳤다.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관광 약자들이 진입로에서 백사장을 거쳐 쉽고 편하게 물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야자 매트도 설치할 예정이다.

명사십리해변은 여름 피서철 단순한 물놀이 공간을 넘어 사계절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수욕장, 노르딕워킹, 해변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서예 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쿨(COOL) 콘서트를 열어 문화와 휴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특정 메뉴를 지정·판매할 수 있는 건강음식 트럭과 건강 포장마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휴양을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블루플래그 인증 갱신 절차는 최종보고서와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4월 중 국제본부에 제출하면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 상반기 3839억원 집행 정부 권장 목표율 보다 8% 상향

완도군이 정부가 권장한 목표율(57%)보다 8% 이상 높여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보고회다. <사신>

완도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인건비, 사무관리비, 소모성 경비 등)와 투자(시설비, 자산취득비) 부분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급집행 특례 및 집행 요령에 따라 선급을 계약 금액의 80%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긴급 입찰제도, 계약관련 심사 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규모 시설사업 읍면 재배정과 보조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지방보조금을 3월 말까지 교부하기로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1분기 내에 구입하도록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 신속집행 자체 목표를 정부가 권장한 57%보다 8% 이상 높은 3839억원으로 설정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행정을 펴 상반기에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코로나19 위기에도 해남 친환경 가바쌀 수출

올 미국 첫 선적 이어 중국·싱가포르 등지 80t 예정

해남 친환경 가바쌀이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 수출쌀 전문재단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가바쌀 2.7t이 지난 23일 미국으로 수출됐다. 가바쌀은 올해 미국·중국·싱가포르 등지로 약 80여t이 추가 수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출길을 여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친환경 가바쌀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의 기술지도를 받아 현산면과 계곡면 일대 수출쌀 전문재단단지에서 재배된 친환경 쌀이다. 쌀눈의 크기가 일반쌀보다 4.3배 크고, 혈당조절, 혈

압강하,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아미노산인 가바(GABA) 함유량이 일반쌀보다 8배 이상 높게 포함되어 있어 가바쌀이라 불린다.

지난해 미국 유기인증(USDA)을 획득, 일반 쌀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 수출된 쌀은 아마존 등 인터넷 쇼핑몰과 캘리포니아 소재 한국 프리미엄농산물 전문판매장인 '올타리몰'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수출업체인 땅끝항토친환경영농법인은 2018년부터 '하양 가바쌀'이란 브랜드로 미국 수출을 시작, 지난해까지 72t을 수출하는 등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수출쌀 전문재단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가바쌀이 지난 23일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해남군, 생애 초기부터 건강관리 책임진다

올해 첫 임신부·신생아 가정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인 해남군은 출산 후 4~6주 이내 간호사 등이 출산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애 초기 건

강관리 시범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출산 후 4~6주 이내 출산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남군은 1차적으로 지역내 등록 임신부를 대상

으로 심리·사회적 평가를 실시해 대상자를 일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일반군 임신부 가정에는 출산 후 4~6주 이내 1회 방문해 산모·신생아 기본 건강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임신부 가정에는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24개월)가 될 때까지 월 1회 지속적인 방문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가정폭력 등 위기상황 가구에는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부와 영아 모두에게 건강한 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면단위 임신부에게 전문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2년부터 7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 서방향 장죽도 새 등대 설치 목표해수청, 선박 안전사고 예방

목표지방해양수산청은 진도 서방향 인근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장죽도 등대를 새롭게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1997년 처음 불을 밝힌 장죽도 등대는 23년간 운영하다보니 노후에 따른 균열과 부식 등 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하기로 했다.

목표해수청은 3억원을 들여 기존 등대보다 4m 높은 12m 규모의 새 등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불빛 도달거리도 18km에서 22km로 넓혀지고, 멀리서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개량한다.

공사는 다음달 시작해 8월 준공 예정이다.

목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 통항이 빈번한 서남해 주요 항로의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점검과 더불어 등대를 새로 설치하는 등 해양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